

광주 도심, 설·대보름 문화행사에 볼거리·놀거리 풍성

광주 예술의전당·역사민속박물관 등 세시풍속행사·국악 공연 등

광주 도심 곳곳에서 설과 대보름을 맞아 누구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전통·문화 행사가 펼쳐진다.

광주시는 '설 연휴(9-12일)와 대보름(23-25일)을 맞아 시민·귀성객들이 정겨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세시풍속행사, 국악상설공연, 정월대보름맞이 당산제, 고싸움놀이축제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열릴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광주예술의전당에서는 설맞이 국악상설공연을 9일과 10일 이틀간 진행한다.

9일에는 지역청년전통국악실내악단이 국악·소리·피리 등과 협연하는 '까지까지 설날은 어찌고-고-요'를, 10일에는 퓨전국악그룹 화양연화가 '우리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를 서구 공연마루에서 각각 공연한다.

광주역사민속박물관은 야외광장과 로비, 기획전시실에서 다양한 세시문화 체험행사 등이 열린다.

10일에는 한복을 입고 전시실에 숨은 용을 찾고 선물받는 '용을 찾아와', 11일에는 용 복주머니, 용 딱지 만들기 체험 '용과 함께해용' 등 민속놀이

체험과 풍물 한마당을 준비했다.

광주 유일의 고대 마한 유적을 전시한 신창동 마한 유적체험관에선 10-11일 윷놀이, 제기차기, 딱지치기, 신창동 윷물 액자 만들기 등 다양한 민속놀이를 즐길 수 있다.

국립광주박물관은 9일부터 12일까지 설맞이 우리문화 한마당을 연다. 용과 관련된 전시품을 찾는 '전시관에서 숨바꼭질해용', 복주머니 조형물 속 자석 낚시 이벤트 '복을 낚아봐용' 등 다양한 체험행사를 마련했다. 또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따뜻한 가족영화와 9-12일 상영한다.

국립광주과학관은 9일 설맞이 인형극, 11일 퓨전국악공연, 12일 설맞이 구연동화 등 여러 공연과 함께 제기차기·투호·삼모들리기·장구 등 전통놀이·악기체험 등을 경험할 수 있다.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에선 24일일 절기체험, 한복체험, 민속놀이 행사 등을 선보이며, 무형문화재 탕화장 송광무의 '세화' 전시와 시연, 국가무형문화재 통영오광대의 '연희극'을 감상할 수 있다.

광주 5개 자치구에서도 다양한 명절맞이 행사를

마련한다. ▲동구 장애인복지관의 '행복나눔한마당'(7일) ▲서구에서는 풍암동 당산제(24일), 유덕동의 '당산제'(25일) ▲북구에서는 평촌 '대보름 행사', 용봉·삼각동 '정월대보름 한마당'(23-24일) ▲광산구에서는 임곡, 은남, 산정동 '세시 풍속 체험', 당산제(23-25) 등이다.

특히 23-25일에는 광주 대표 지역축제인 정월대보름 고싸움놀이축제가 고싸움놀이 전시교육관에서 열린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일원에서는 2024 다북다복 설날맞이 프로그램으로, 아시아 전통놀이마당, 갑진년 푸른 용 딱지 만들기, 오리차차 신년 윷점 한판!, 청통과 찰떡 행사 등을 진행한다.

자세한 공연, 전시 등 문화행사 정보는 광주문화예술통합플랫폼 '디어마이광주'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김성배 광주시 문화정책관은 "설 명절을 맞아 광주를 찾는 가족과 고향 방문객들이 전통문화와 미디어 아트가 결합한 공연·체험행사를 풍성하게 즐길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해 가족의 정을 나누는 훈훈한 설 명절을 보내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총선 브리핑

전진숙 "북구, 일자리·교육·문화 등 대개조"

광주 북구를 예비후보

4월 총선에서 광주 북구에 출마표를 던진 전진숙 예비후보는 7일 "문화·관광, 교통·공간, 산업·일자리, 교육·주거, 생애주기 복지 등을 모두 대개조해 북구에 새 판을 짜겠다"고 말했다.

전 예비후보는 이날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공약을 발표하고 "1991년 조성된 우치공원은 노후했고 놀이시설 안정성 문제는 민원 급증, 방문객 감소로 이어져 적자 운영이 심각하다"며 "우치공원과 대아저수지 일대에 AI 융복합 문화 테마파크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2027년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신조성으로 이전 전시관 활용 계획이 필요하다"며 "광주비엔날레 일대에 시민상상파빌리온을 조성, 문화예술



권역 통합 브랜드화 등으로 시민문화벨트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밖에도 ▲영산강 Y프로젝트와 연계한 가족여가시설 조성 ▲동운고가 철거로 등 상습정체 해소 ▲광주역-송정역 지하화·상부 개발 ▲광주공고 AI특성화고교로 전환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늘봄체계 개선 등을 제안했다.

전 예비후보는 "북구 인구는 광주에서 가장 많지만 산업 구조는 취약하고 경기는 침체해 있다"며 "여러 공약을 이행해 북구를 광주의 심장으로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김용재 "복합쇼핑몰 매출 1% 상생기금 조성"

광주 광산을 예비후보

4·10 국회의원선거에서 광주 광산을 출마를 선언한 김용재 녹색정의당 예비후보는 7일 "복합쇼핑몰 매출연동 기금법 제정으로 복합쇼핑몰의 연매출 1% 이상을 매년 상생기금으로 조성하고, 지역상권과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 지원이 가능하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유통 대기업 입맛대로 좌지우지된 상권 영향 평가를 지자체가 책임지고 하도록 개선하고 행정 절차는 평가 이후에 이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의 보좌진으로 일하며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에 대한 의정을 경험한 김 예비후보는 "탈석탄법"과 "탈원전법"을 제정하



고 지역별 '탄소중립 특구'를 지정해 국가 목표 '2030 온실가스 배출 40% 이상 감축'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예비후보는 "산단이 밀집돼 있고 광주에서 공동주택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광산구를 탄소중립 특구로 지정하고, 영광 한빛원전의 수명 연장을 막고 광주·전남이 상생하는 RE100 녹색혁명 비전을 국가계획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소상인살리기광주네트워크 위원장, 강은미 국회의원 비서관 등을 지냈으며 현재 선순환경제연구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김승남, 명절 앞 전통시장 찾아 상인 애로 청취

고흥보성장흥강진 예비후보

김승남 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 선거구 예비후보는 설 명절을 앞두고 보성, 강진, 고흥, 장흥 지역 전통시장을 찾아 상인들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시장을 찾은 지역민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민심잡기에 공을 들였다.

김 예비후보는 지난 4일 보성 벌교와 강진을 전통시장을 시작으로 5일 고흥 과역, 6일 고흥 동강, 7일 보성을 전통시장을 둘러보고 8일에는 장흥읍, 고흥 도양을 전통시장을 돌며 명절 장보기 체험을 통해 상인들의 어려움을 청취한다.



김 후보는 또 같은 시각 시장을 찾은 지역민들과 새해 덕담을 나누며 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설민심 청취 활동을 강화한다.

김 후보는 "힘 있는 3선 국회의원이 되어 지역 상권을 살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입법과 정책을 꼭 마련하겠다"며 다시 한 번 지지해줄 것을 호소했다.

/김지우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 50인 미만 기업 지원 강화 시-6개 기관 중재법 지원 협약

광주시는 "7일 시청에서 광주고용노동청, 광주 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안전보건공단 광주광역시본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광주지역본부,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등 6개 기관과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감축 및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달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으로 전면 확대·시행됨에 따라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것이다. 이들 기관은 안전보건활동 우수기관에 대한 특전(인센티브)을 제공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등 안전문화 확산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광주시는 안전지킴이 활용 건설현장 점검과 산재예방 수칙 홍보를 실시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위험성평가 상담(컨설팅) 지원을 집중할 방침이다. 또 산업안전 우수기업 인종제도와 연계, 민간사업장의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유도하는 등 지원방안도 모색한다.

또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안전보건공단 광주광역시본부는 소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위한 모든 역량을 집중 지원하고, 정부의 맞춤형 지원사업인 산업안전 대진단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안전보건 관리체계구축 상담, 안전보건교육 때 강사, 자료 제공 등 업무지원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박남주 광주시 시민안전실장은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정부와 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직접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영록 지사, 마을기업-농민 상생 모색



김영록 전남지사가 7일 순천시 농업회사법인 쌍지플 전통식품을 방문, 제조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순천 쌍지플 전통식품 방문

김영록 전남지사가 7일 순천의 마을기업 쌍지플 전통식품(주)을 방문해 기업 애로사항을 귀담아 듣고 제품 생산 현장을 둘러본 후 농식품기업과 지역 농민 간 상생과 성장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마을기업 현장방문에는 김영록 지사를 비롯한 한준욱·한숙경 전남도의회 의원, 순천부시장, 유성진 전남마을기업협의회장 등이 함께했다. 농업회사법인 쌍지플전통식품(주)은 2013년

10월 설립됐다. 지역 농산물을 주원료로 건강한 먹거리를 제조·판매해 주민 소득과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2015년 지역경제 활성화 공로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마을기업에 지정됐고, 매년 지역 쌀 2000만원 계약재배와 전남지역 농산물 1억6000만원 구입 등으로 농가소득 향상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전남지역 마을기업은 209개소로 전국(1798개소)의 11.6%를 차지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조선의 시인
아홉번째
시집



제9 시집
조선의 시집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조선의 시인

지은이 | 조선의
펴낸 곳 | 도서출판 상상인 ☎ 02-747-1367

담양에서 길어 올린 아름다운 시편들의 향연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 이 시집은 담양을 사랑하는 조선의 시인이
몸소 시가 된 담양의 현사가 아닐까. ”

이성혁(문학평론가)

시인의 말

과거가 / 미래를 향해 / 현재에 살아 있는 곳
담양은 / 말로만 듣는 것보다 / 직접 와서 보면 안다
왜 다시 오고 싶은지



조선의

농민신문 신춘문예, 기독교 신춘문예, 미션21 신춘문예 당선
송순문학상, 신석정문학상, 신성문학 대상 등 수상
시집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밑서』,
『꽃으로 오는 소리』,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임의 문장』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